

“오랜만에 혼자 대본 읽으며 눈물 흘렸죠”

‘야한(夜限) 사진관’ 주원 “내 주변도 돌아보게 돼”

“제가 정말 멋진 작품인 것 같아요. 따뜻한 드라마, 대본을 보면서 힐링되고 연기하면서도 힐링되는... 오랜만에 혼자 대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배우 주원)

주원은 최근 열린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 ‘야한(夜限) 사진관’ 제작발표회에서 “너무나 따뜻하고 슬픈 내용, 재미있고 귀여운 내용 등이 다양하게 담긴 드라마”라며 “활영하면서 공감하게 됐고, 내 주변도 돌아보게 됐다”고 전했다.

16부작인 ‘야한 사진관’은 죽은 자들을 위한 사진을 찍어줘야 하는 운명을 가진 사진사와 검사 출신 열혈 변호사

의 이야기를 다룬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다. 사진관을 찾은 귀신들의 사연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주는 한편 두 주인공의 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을 다룬다.

주원은 귀신 전문 사진관을 가업으로 이어받은 서기주를 연기했다. 35세에 단명하는 저주를 타고난 서기주는 귀신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한복을 만나 저주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

권나라는 오지랖 넓은 성격 탓에 검사 자리에서 물러나 생계형 변호사로 일하는 한복 역할을 맡았다. 한복은 귀신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설정이다.



배우 주원 <스튜디오지니 제작>

권나라는 “드라마 속에 피소드가 사랑 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들”이라며 “공감이 가고 따뜻한 이야기라서 참여해보고 싶었다.”

연출은 ‘또 오영영’ (2016), ‘연모’ (2021)의 송현욱 PD가 맡았다. 송 PD는 “코미디 판타지 액션도 감동도 있는 배리어티한 드라마”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연협뉴스

Table with 2 columns: Day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Content (fortune predictions for various zodiac signs).

광주매일TV

광주매일신문 영상뉴스 제보·문의 062) 650-2100

프로그램 안내 kjdaily.com PC·스마트폰 YouTube Facebook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제31차 광주문화신행 정기총회 [현장스케치]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점검 [LIVE] 대변화시대, 전남 여성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과제- 2023년도 전남 인적자원개발 포럼 [파워인터뷰] 이용범 광주광역시 파크골프협회장 노형욱 전 국토부장관



최인태의 사주칼럼

요즘 영화 ‘파묘(破墓)’가 인기다. 풍수 전문가가 보면 대부분 실전 풍수 이론과는 차이가 많은 비현실적인 판타지 영화지만 그래도 음택(陰宅)의 대명사인 묘(墓)를 주제로 한 영화가 이렇게 남녀노소 상관없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것도 놀라운 일이다.

이에 집과 사무실의 운을 좋게 하는 양택풍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보자. 동양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이론인 양택삼요(陽宅三要)나 풍수이론이나 대만, 미국 등지에서 굉장한 인지도가 높은 현풍공수(玄風風水) 등 구 유렵이나 인도 등지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BTB 풍수 등 모든 풍수 학파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은 출입구 즉 대문과 현관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출입구에서 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다. 첫 번째,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화상실이 보이고 화상실 문과 현관문이 직선으로 그대로 마주 보고 있으면

연이 좋다. 두 번째 현관을 들어서고 때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은 안방의 출입구와 일치되지 않는다. 세 번째 현관을 들어서고 때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은 날카로운 물체다. 풍수에서는 날카롭게나 뾰족한 형상을 칼로 본다. 그래서 보통 각살(角殺)이라고 표현한다. 굳이 놓아야 한다면 둥글둥글한 형상을 갖다 놓는 것이 좋다. 동그란 형상은 모든 것을 화합시키는 좋은 기운으로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좁은 출입구인 현관문이나 대문이나 현관문이다. 그래서 풍수 전문가들은 출입구만 보면 그 집의 풍수의 60% 이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출입구에서 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다. 첫 번째,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화상실이 보이고 화상실 문과 현관문이 직선으로 그대로 마주 보고 있으면

파묘(破墓)

연이 좋다. 두 번째 현관을 들어서고 때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은 안방의 출입구와 일치되지 않는다. 세 번째 현관을 들어서고 때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은 날카로운 물체다. 풍수에서는 날카롭게나 뾰족한 형상을 칼로 본다. 그래서 보통 각살(角殺)이라고 표현한다. 굳이 놓아야 한다면 둥글둥글한 형상을 갖다 놓는 것이 좋다. 동그란 형상은 모든 것을 화합시키는 좋은 기운으로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좁은 출입구인 현관문이나 대문이나 현관문이다. 그래서 풍수 전문가들은 출입구만 보면 그 집의 풍수의 60% 이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출입구에서 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다. 첫 번째,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화상실이 보이고 화상실 문과 현관문이 직선으로 그대로 마주 보고 있으면

TV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2)610-7100 MBC (062)360-2000 KBC (062)650-3114 EBS 1588-1580

Table of TV programs by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EBS1) listing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Advertisement for TBN 광주교통방송 (TBN Gwangju Traffic Broadcast) featuring program schedul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KCTV 광주방송 (KCTV Gwangju Broadcast) featuring program schedules and contact information.